

NEWS 방송계 동향

CBS

CBS 본사 스튜디오 공사 시행



CBS 본사는 2월부터 표준FM과 음악FM의 생방송 스튜디오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오디오 콘솔의 경우 부품열화 및 음질저하와 같은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공사

에서 콘솔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품 선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두고 각 스튜디오 환경에 맞는 음향세팅을 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소리를 들려드릴 예정이다.

KBS

KBS 신입사원 송중계소 및 지역방송국 방문



KBS 신입사원들이 전국 10개 루트를 찾아 고지 송중계소 및 지역방송국들을 방문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선배들의 격려와 호응이 2박 3일간의 미션을 무사히 마치는데 큰 힘이 되었다.

SBS

SBS 기술인협회 제12대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제12대 SBS 기술인협회는 첫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제11대 협회의 활동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보고했고 제12대 부회장, 감사 추인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등의 활동을 했다.

ATSC 3.0 본방송시스템 실험방송 성공



1월 20일 SBS는 ATSC 3.0 기반 기술로 목동 사옥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관악 송신소까지 송출하고 TV수상기로 수신하는 본방송시스템 실험방송에 성공했다. 기존 ATSC 3.0 방식 실험방송이 사전에 준비된 소스를 단순 송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실험방송은 IP 기반으로 본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험방송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실험 방송은 MBC, LG전자 그리고 ETRI가 공동 참여했으며 2017년 2월 UHD 상용 서비스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tbs

tbs,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미팅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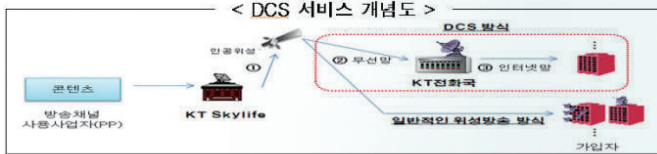


tbs는 지난 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문학의집 서울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 미팅을 열었다.

이날 액션 미팅에는 정찬형 대표를 비롯해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 130여 명의 직원들과 방송제작 인력이 참석해 방송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뉴미디어 시대에 라디오 매체의 한계와 비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DCS 재개



KT스카이라이프가 3년 만에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재개한다. DCS는 위성망과 IPTV망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서비스다.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정이 없어 DCS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고, 2015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DCS를 임시 허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의 음영지역부터 DCS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BS

BBS 새해 시무식 개최



BBS는 지난 4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새해 시무식을 가졌다. 선상신 사장은 "BBS 불교방송이 나눔의 기쁨과 향기로운 방송이 되기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이 사회의 역할을 통한 불교방송의 재정 확보와 사육 건립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다면서 선상신 신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올해는 특별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 개국의 의미와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

베트남판 'EBS' 개국, AIC-VTV-EBS 협력 협약식 가져



1월 8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베트남에서 한국 교육방송 모델을 본뜬 'VTV7'이 개국하였다. 단순한 콘텐츠 수출을 넘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 교육한류'의 첫 성과인 것이다.

우종범 EBS 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VTV7 설립을 위해 EBS-AIC-VTV 3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한 후, 1년 8개월 만에 '베트남 교육방송 VTV7'이 성공적인 개국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VTV7이 성공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7일에는 EBS Branded Block을 통한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AIC-VTV-EBS 협력 협약식을, 9일에는 AIC-EBS 간 MOU를 맺어 교육 다국문터리 제작 노하우 공유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합의를 하였다. EBS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E러닝 사업, 그리고 베트남 현지 교사 선발에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YTN

YTN 사이언스, 제4차 과학기술전문방송으로 선정

다양한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를 이끌어온 YTN 사이언스가 제4차 과학기술전문방송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YTN 사이언스는 2018년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YTN 사이언스는 4차 산업 기간에 세계 시장을 겨냥한 명품 과학 다국문터리 등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풀어주는 클립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전문방송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MBC

<기후의 반격>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사와 중국 CCTV가 3부작 다국문터리 <기후의 반격>의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중 편성제작본부장과 감조강 CCTV10 과학교육채널 총감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제작되는 <기후의 반격>은 전 인류의 관심사인 기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담는 다국문터리로, 총 제작비 10억 원이 투입돼 글로벌 대작 다국문터리로 제작된다. 올해 상반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해 오는 11월에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국제방송

키르기스스탄 공영방송사 KTRK 사장 아리랑TV 방문



키르기스스탄 국영방송사 KTRK 사장이 지난 1월 5일 아리랑TV를 방문하였다. KTRK 사장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연방국가로서 러시아의 콘텐츠들이 많으나 아리랑TV 콘텐츠를 자국의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상호 방송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KTRK는 1958년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국영방송사로 현재 5개의 TV와 라디오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